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세기)의 건축물로, 지방 고유의 풍토와 관습에 의한 색채를 짙게 띠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대지의 자연을 활용하고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해 온 옛 사람들의 지혜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생활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의 우리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건네줍니다.

일본 민가 취락 박물관

■ 관람시간 9:30~17:00
입장은 16:3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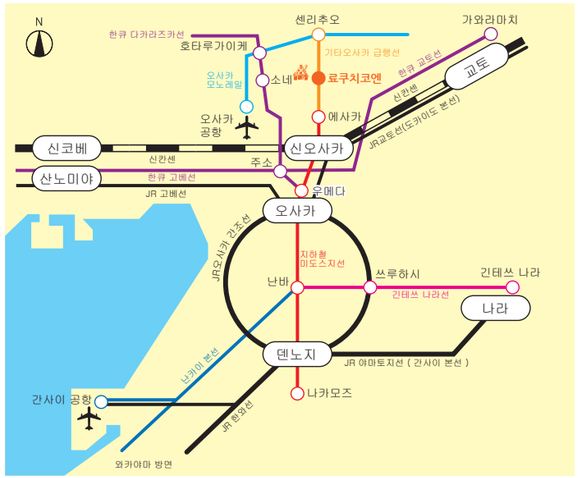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국경일·대체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12월 27일~1월 4일

■ 입장료

	일반	고등학생	초등·중학생	유아
개인	800엔	300엔	200엔	무료
단체 (20명 이상)	600엔	200엔	150엔	100엔

■ 교통편

- 기타오사카 급행전철 (지하철 미도스지선 접속) '료쿠치코엔' 역에서 하차, 서쪽으로 약 1km
- 한큐전철 다카라즈카 선 '소네' 역에서 하차, 동쪽으로 약 2km



안내와 주의사항

이 박물관은 국가 또는 오사카부가 지정한 문화재인 귀중한 민가가 전시되어 있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조심스럽게 견학하여 건물 보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 내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지정 흡연장소 이용해 주십시오.)
- 민가 내에서 음식을 드시거나 박물관 내에 알코올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 민가 내에서 스케치, 인물촬영, 삼각대 사용은 금지합니다.
- 촬영회, 상업 촬영, 보도·학술에 관련된 촬영 등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 금지 구역 (대나무 숲 울타리 안) 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 풀꽃, 곤충 채집은 삼가 주십시오.
- 쓰레기는 모두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in the fiscal 2013

일본 민가 취락 박물관
우편번호 561-0873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핫토리료쿠치 1-2
TEL : 06-6862-3137 http://www.occh.or.jp/minka/

Open-Air Museum of Old Japanese Farmhouses

日本民家集落博物館

일본 민가
취락 박물관

오래된 일본 각지의 민가를

일본 민가 취락 박물관은 일본 각지의 대표적인 민가를 이축 및 복원하여 당시 사용된 도구와 함께 전시한 야외 박물관입니다.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핫토리료쿠치 일각의 약3만 6천㎡의 부지 내에 북부지방인 이와테의 '난부의 마가리야'에서 남부지방인 가고시마의 '아마미 오시마의 다카쿠라'에 이르기까지 민가 12동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민가는 모두 에도시대(17~19

일본 민가 취락 박물관

1 가와우치후세의 나가야몬 (오사카부)

에도시대 중엽에 사용되었던 촌장이 살던 집의 대문입니다. 오른쪽은 하인이 거주하던 방, 왼쪽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2 휴가 시이바의 민가 (미야자키현) 国指定重要文化財

원래 산의 경사면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형에 따라 안길이가 좁고 방이 옆으로길게 늘어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가에서는 가구라 전통무악이 펼쳐졌습니다.

3 시나노 아키야마의 민가 (나가노현) 国指定重要文化財

입구가 돌출된 L자형 구조는 '주몬즈쿠리'라고 불립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산악지대의 진귀한 건물로, 벽은 두꺼운 비자나무로 덮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토방에 비자나무를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생활하였습니다.

4 야마토 도쓰카와의 민가 (나라현) 大阪府指定有形文化財

안길이가 좁고 방이 옆으로 길게 늘어선 구조는 이 민가가 산의 경사에 따르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붕 처마에는 '우치오로시'라고 불리는 판자를 부착되어 있어 강한 비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5 에치젠 쯔루가의 민가 (후쿠이현) 大阪府指定有形文化財

눈이 많은 지방에 있었던 민가로 굵은 목재를 많이 사용하여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부엌 바닥은 다른 방보다 한 단 낮은데, 이는 토방에 멍석을 깔아서 생활하고 있었던 시대의 영향입니다.

6 기타카와치의 다실 (오사카부)

일본의 전통적인 다실입니다.

7 난부의 마가리야 (이와테현) 大阪府指定有形文化財

L자형으로 구부러진 모양이라서 '마가리야(구부러진 집)'라고 불립니다. 생활공간과 마굿간이 연결되어 있어 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말을 사육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집 안에서도 말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8 쇼도시마의 농촌 가부키 무대 (가가와현) 大阪府指定有形民俗文化財

원래는 신사 경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이 연기자가 되어 가부키(연극) 전통극을 했습니다. 관객도 역시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9 아마미 오시마의 다카쿠라 (가고시마현) 大阪府指定有形文化財

'다카쿠라'는 바닥이 지면과 떨어져 있는 고상식 창고로, 곡물 등을 습기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창고에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출입했습니다. 기둥은 쥐가 오르지 못하도록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10 셋쓰 노세의 민가 (오사카부) 国指定重要文化財

셋쓰 노세 지방 특유의 민가입니다. 집 안은 방과 토방의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도시대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1 히다 시라카와의 민가 (기후현) 国指定重要有形民俗文化財

커다란 지붕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합장즈쿠리'라고 불립니다. 시라카와무라는 이 마을의 독특한 가족 구성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1995년에 '시라카와고'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12 도지마의 쌀창고 (오사카부)

오사카가 '천하의 부엌'으로 번영을 누렸던 에도시대에는 도지마 강 주변에 각지의 영주들이 소유한 쌀창고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카이의 풍차

일본 각지의 오래된 민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illustrator : Chikako Ishikawa